

조선중기 의생활 어휘에 대하여

- 순천 김씨묘 언문간찰 중심 -

장 인 우

인천대학교 패션산업전공 조교수

On the Vocabulary of Clothing in the Middle of Chosun Dynasty

- Base on Mrs. Soonchen Kim's Letters -

In-Woo Chang

Assistant Professor, Dept. of Fashion & Industry, University of Incheon

(2001. 10. 13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clothing culture in the middle of Chosun Dynasty by observing the vocabularies in Mrs. Sooncheon Kim's letters written in pure Korean in the 16th Centuries. To analyze the vocabulary, classification was made into three groups : names of clothing, material, verb, and observe the constituent and change on vocabulari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 The vocabularies of clothing in letters in 16th Centuries consist of pure Korean, Chinese and Mongolia, and most of them are pure Korean.
- Most of the vocabularies which are not used today were pure Korean : Garamei·Myentei...
- The vocabularies changed and used today had the definite meaning from that of general : Godo, Cheksum.

The vocabularies of material having various unit of measurement and grade according to the material of clothing mean the systematic development of physical culture of that time, and the development of the various modifications of the act and expression mean the various ways of clothing life.

Key Word : Letters written by pure Korean(언문편지), A Vocabulary(어휘), Mrs. Soonchon Kim's tomb(순천김씨묘)

I. 서 언

언어에 있어서 단어들의 총체를 어휘라 하며, 이러한 어휘연구는 그 민족의 생활과 정신연구와 그 맥을 같이함¹⁾으로서 과거 문화이해에 단서가 된다. 의복명칭을 비롯한 의생활 어휘연구는 복식 변천사는 물론 복식과 그 주변 문화와의 상관관계를 살필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언어는 말하는 말과 쓰는 글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고대로부터 우리 고유의 말을 하고 살았으나 우리 고유의 글을 가지게 된 것은 조선시대 훈민정음이 창제되면서부터였다. 이때부터 한글을 통하여 생활 속의 어휘를 볼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훈민정음의 창제 이후에도 문서는 한문으로, 실용문은 이두로, 한글은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사용되었다²⁾. 과거 대부분의 문헌이 중국어인 한자로 기록됨에 따라 중국식 어휘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언문간찰의 발굴은 고유어 어휘연구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당시 생활어휘이해도 도움이 되며, 더 나아가 문헌기록과의 차이를 밝힐 수 있는 자료로써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복식어휘에 관한 연구는 전반적인 용어변천에 관한 연구³⁾⁴⁾, 특정 의복중심의 명칭 연구⁵⁾⁶⁾⁷⁾가 있으며 대부분은 한문으로 기록된 문헌중심이었다. 이외 언문간찰에 대한 연구⁸⁾⁹⁾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해 순천김씨묘 출토간찰」(조항범, 1998)에 기초하여 의생활을 언급하고 있는 189편의 언문간찰 가운데 의생활 어휘를 의복명칭·의복재료·의생활 동사의 3측면에서 살펴 조선중기 의생활문화를 이해하고자 한다. (순천 김씨 간찰은 발굴이후 각 간찰에 일련번호가 정해졌다. 이에 의생활 어휘가 언급되는 간찰의 내용을 지면상 모두 기록하지 못하고 간찰 번호를 (순언 1·2···)등으로 기록하였다.)

II. 순천 김씨 간찰의 배경과 의의

1. 순천 김씨묘의 배경

순천 김씨묘의 출토유물은 1977년 충북 청원군(淸原郡) 북일면(北一面) 외남리(外南里) 김천(金川 쇄내)에서 청주비행장 건설시 무덤을 이장하는 과정에서 40대 모습을 한 미라와 함께 발굴되었으며¹⁰⁾, 1979년 12월 중요민속자료 109호로 지정되었다.

순천 김씨는 김훈의 3남4녀 중 셋째 딸로 태어나 채무역(蔡無易)의 계배(繼配)로 시집갔으며, 남편인 채무역은 1537년(중종32년, 丁酉)에 태어나 명종10년(1555)에 생원이 되어 익위사시직(翊衛司侍直)을 지냈으며 1594년(선조27년)에 죽었다. 여기서 순천 김씨의 생존연대는 알 수 없으나 순천 김씨가 1548년 이전에 태어나 채무역 생존시에 사망한 것으로서 임란이전의 인물로 추정할 수 있다.

순천 김씨의 어머니인 신천 강씨(信川 康氏)의 생장지는 경상도 선산(善山)이다. 서울로 시집을 온 인물이며, 이 신천 강씨의 소생인 순천 김씨는 서울에서 태어나 성장하였으며, 결혼 후 남편인 채무역을 따라 청주에서 생활하였다. 순천 김씨의 남편인 채무역은 서울에서 태어나 생활하다가 관직을 제수 받아 청주로 내려온 서울사람이다. 여기서 순천 김씨의 생활문화는 청주를 중심으로 한 충청도 양식과 함께 본인의 생장지인 서울과 어머니의 생장지인 경상도의 성향이 내포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순천 김씨묘 간찰의 의의

순천 김씨묘 출토 언문간찰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다량의 간찰이 출토된 점이다. 즉 출토품은 복식이외에 총 192장의 간찰이었으며, 그 가운데 3편의 한문간찰을 제외한 189편이 언문간찰인 점이다. 순천 김씨와 모친인 신천 강씨를 비롯한 친인척들과 주고받은 편지들이다.

특히 순천 김씨의 언문간찰은 모녀간의 생활사 중에서도 양잠과 길쌈 등 의생활에 대한 많은 대화

가 기록되어 당시 의생활문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며¹¹⁾, 또 역사서가 아닌 일반 문서로서 역사서 안에서도 제한된 분야였던 복식어휘연구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의미를 밝힐 수 있다.

이러한 순천 김씨의 간찰은 추정연대가 16-17세기로 확인되어 후기중세국어에 속한다. 이러한 순천김씨 간찰은 한자어의 대량침투·어간모음에 의한 차이·어휘의 경어표현발달·중국어 차용의 다양화 현상들이 나타나는 중세국어¹²⁾의 의생활 어휘이해에 중요한 자료로서 그 의미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순천 김씨의 가족관계와 생장지 관계를 통해 보면 서간에 나타난 어휘는 특정 지역보다는 여러 지역의 여인들의 보편적 정서와 삶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서 조선중기 의생활 어휘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Ⅲ. 명칭에 관한 어휘

간찰에 나타난 의복명칭어휘를 통하여 고유어와 한자어 명칭의 구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1. 의복류 전체를 나타내는 용어

의복종류를 나타내는 어휘로 「옷·훈옷·저옷·ㄱ락매·더공·월취」 등이 있다.

- 1) 옷 (1·9·14·17·18·20·31·33·34·36·38·52·55·59·80·94·102·108·109·115·121·122·125·139·143·144·146·147·153·166·173·176·190)

「옷」은 오늘날 사전에서 의복류 전체를 나타내는 우리의 고유어휘이다. 여기서 정호환은 「옷」은 방언에서 올/옷/우티/우테/오트/우트 등이 있으며, 이는 어휘 「옷」이 신라어 위해(尉解)우(g)>옷 우티(오티)의 형태들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우티(오티)의 변이형은 어말모음 ㅎ의 탈락으로 「옷」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위해는 방위를 나타내는 위(上)의

의 변이형 '우계/우구/우그와 유사한 것으로 '옷'을 '위'의 의미로 해석하였다¹³⁾. 김동욱은 이러한 위해를 위에 입는 옷, 즉 바지에 대응하는 옷옷 즉 저고리류로, 정호환은 「위(上)」를 신체에 대응하는 위(上)로 인체를 감싸는 의류 전체를 나타내는 보통명사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어휘 「옷」은 순천 김씨간찰 가운데 내용은 「...니블오솔하랴...」 「...정생원이 옷도 받지 않고...」, 「...네 오라비가 옷을 하도 못 얻어 입어...」, 「...옷이나 두둑이 입히고자 한다...」, 「...괜찮은 옷이 구비되니...」 「...훈옷...」, 「...그 오손 보내마...」, 「...내 오솔 보내마...」 등이다. 여기서 어휘 「옷」이 특정 의복이 아닌 의복류 전체의 보통명사(1·9·17·18·31·38...)로, 또 특정 의복을 지시하는 대명사(176·190·102)로, 또 의복의 상태 혹은 구성을 나타내는 명사(17·31·147...)로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의류 전체를 나타내는 어휘 「옷」을 통하여 우리민족의 옷에 대한 개념은 인체의 위의 것으로 즉 옷은 인체의 일부이면서 외피임을 의미한다. 즉 오늘날의 제2의 피부와 유사한 개념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순천 김씨 간찰인 조선중기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지녔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어휘 「옷」이 일반적 의복의 통칭으로 사용된 예는 본 간찰과 유사한 시기의 중국어 교과서인 『번역노걸대』와 『번역박통사』¹⁴⁾ 그리고 뒷시기의 중국어 어휘집인 『역어유해』¹⁵⁾에서 중국어(漢語)로 의(衫)¹⁶⁾·의상(衣裳)¹⁷⁾·의복(衣服)¹⁸⁾·오자(襖子)¹⁹⁾와 의복명칭²⁰⁾이 모두 「-옷」으로 번역됨을 통하여 어휘 「옷」이 오늘날 보다 더 폭넓게 사용된 어휘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어휘 「옷」은 신라시대 저고리류를 지칭하던 「위해」에서 비롯되었으며, 조선중기에서는 의류 전체를 나타내는 보통명사의 고유어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 ㄱ락매

어휘 「갈음옷」은 외출시에 착용하는 의복²¹⁾을

말한다. 이는 갈아입는 옷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한다. 「…겹 ㄱㄹ매 비단 뵈고 둔겹고 붉고 흰니 사 보내여라…」(14), 「…내 가ㄹ매사 아되나 쉬 오리 히여 보내고 …」(137) 여기서 ㄱㄹ매는 오늘날에는 사용되지 않는 어휘이며, 유사 어휘로는 같은 것으로 서로 바꾸어 대신한다는 「갈음」을 볼 수 있다²²⁾. 어휘 「ㄱㄹ매」는 조선중기에서는 외출시 갈아입는 옷을 뜻하는 어휘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사라진 어휘라 추정한다.

이러한 「ㄱㄹ매」에 대해 이은주는 머리장식 「ㄱ리매」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²³⁾. 그러나 「ㄱ리매」는 동사어휘 「가리다」에서, 「ㄱㄹ매」는 「가리입다」에서 파생된 어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ㄱㄹ매」는 외출시 착용하는 의복을 지칭하는 고유어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자료를 통하여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2. 포류

간찰에 나타난 포류의 명칭에는 「덕령·털릭·당옷·등치막·비즈·비계옷」 등이 있다.

1) 덕령 (순언 5·9·17·31·35·36·37·90·126·138·144·158·165·179)

「덕령」은 포류의 명칭가운데 그 출현빈도가 가장 높다. 그 내용은 「…덕령ㄱ슴…」, 「…털릭·바디·덕령…」, 「…뵈덕령…」, 「…덕령감…」, 「…덕령은 이번도 못하여…」, 「…한덕령ㄱ슴은…」, 「…네 덕령ㄱ슴은…」, 「…무명덕령…」, 「…한덕령엇그제야 호고…」, 「…모시덕령…」, 「…덕령드리…」, 「…덕령ㄱ슴 계오 빠니…」 등이다.

여기서 「덕령」이 당시 특정 의복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또 고유의 의복형태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덕령」은 무명덕령(138)·한덕령(90)²⁴⁾·모시덕령(158)이 있다. 이는 봄·가을의 무명덕령과 여름용 모시덕령 그리고 겨울용 한덕령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과거 실물인 출토 직령의 구성유형이 홑겹(이언웅/모시덕령)과 두겹(벽진이씨·홍계강·김위), 그리고 솜(정응두)으로 구성된 것²⁵⁾(김동욱)은 간찰에 나타난 직령과도 일치한다.

이는 당시 직령이 계절에 따라 구성을 달리하여 4계절 모두 착용되었던 일상복임을 뜻한다. 그러나 앞의 다양한 구성유형의 직령 가운데 모시직령이나 솜직령이 비교적 조선초기의 출토복식에서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이언웅·정응두).

2) 털릭/ 털링 (순언 13·17·18·21·31·150·151·158·175)

「털릭」은 「덕령」 다음으로 그 빈도가 높다. 이러한 털릭은 그 형태와 명칭에 있어서 시대구분이 비교적 뚜렷한 의복이다. 특히 조선중기는 문헌에서는 첩리(帖裏·帖裡)로, 이후 조선후기에는 철익(綴翼·天翼)이 한문으로 기록되었으나, 언문어휘 「털릭」은 조선중기언문기록²⁶⁾뿐 아니라 말기의 언문기록에서 볼 수 있었다. 여기서 본 간찰에 나타난 어휘 「털릭」은 언문에서는 앞시기인 조선중기에서도 「털링」과 함께 「털릭」이 일상시 고유어휘로서 사용되었음을 반영한다. 이는 한자어에서는 변화가 있었지만 고유어휘는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뜻한다.

「털릭」에 관한 간찰의 내용은 「… 거문 털링 …」, 「…고도·털릭·바디·덕령…」, 「…털릭도 계오 받고…」, 「…그 털릭을 지어 빌려라…」, 「…털링 얻고 싶다하되…」, 「…초록 털릭 안과를 호고져…」, 「…털릭…」, 「…털릭갑쇠 무명 세피리 가느니라…」 등이다.

간찰에 의하면 「털릭」은 검정과 초록의 다양한 색상으로 착용되었으며, 또 이러한 털릭은 제작에 있어서 빌리거나 혹은 구매를 통하여서도 착용되었던 것과 당시 맞춤 혹은 구매시 털릭의 가격은 안감을 사용한 2겹으로 구성된 「털릭」이 무명3필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21·175).

3) 당옷 (순언 7·9·15·17·59·80·106·144)

「당옷」은 당시 문헌에서는 장의(長衣)로 볼 수 있으며, 장옷 역시 조선후기이후 언문에서 볼 수 있었던 명칭이나 본 간찰을 통하여 조선중기에서도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간찰에 나타난 「당옷」의 내용은 「…당옷ㄱ슴만…」, 「…당옷감도 빠다…」, 「…훈 당오시나 지어

라…», 「…흰 당옷보다두고…», 「…내 당옷 치마은
흐고져 하니」 등이다.

여기서 「흰당옷」의 출현은 장옷의 한 종류로 장
옷을 색상으로 구분하였음을 의미하며(79), 이러한
흰당옷은 동시기의 출토유물가운데 진주하씨(28)와
임계백유물(29)에서 출토되어 당시 흰색 장옷이 착
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외 현풍 광씨 간찰과 유물
을 통하여 다양한 색의 당옷의 착용도 확인할 수 있다.

4) 둥치막(순언 31·79·82·102·165)

조선후기 기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둥치막」은
조선중기의 언문에서도 나타난다. 여기서 중적막
(巾赤莫)은 고유어 명칭인 「둥치막」의 한자차용어
라 할 수 있다. 17세기 기록에서 「袍襖…如俗巾赤
莫…」(30)은 포오가 중치막의 유사명칭임을 의미한
다. 여기서 포오(袍襖)는 중국식명칭이라 볼 수 있
다. 둥치막 역시 저고리(赤古里)와 같이 포에 대한
우리 고유명칭가운데 하나임을 알 수 있으며, 본
간찰을 통하여 어휘 「둥치막」이 적어도 조선중기
부터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어휘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선중기 출토복식에 나타나는 옆트임
포를 「둥치막」으로 명명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이다.

간찰에 나타난 빈도를 통하여 볼 때 「둥치막」은
당시 다른 포류 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착용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하며 그 내용은 「…겹둥치막·
바디·고도…», 「…ㄱ술 둥치막명디 …석섬지주
고…», 「…둥치막도 흘…», 「…이 둥치막은 고공이
니버은 오시오 …», 「…것 둥치막 것고로 안 …」
등이다.

여기서 중치막은 겹-, 겹둥치막, 구성이 두겹으
로 구성된 것(31·7·9·82·165)으로 다양한 것
을 볼 수 있으며, 이는 당시 둥치막이 일상적인 의
복이었음을 뜻한다. 동시기 출토 옆트임포는 대부
분 솜(김위·전주 이씨) 혹은 솜누비(김위·구례손
씨·전주 이씨·장기정씨) 혹은 2겹구성(전 박장
군·임계백·양친 허씨)으로 이루어진 것과도 그
유형에 있어서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조선중기 이
러한 둥치막용 명주의 값이 약 석섬이었다(79).

5) 비즈/바즈 (72·86·130·144·147·155)/ 등 베게

배자의 내용은 「…바즈는 사신가…」(155), 「…ㄱ
올히 비즈를 호마…」(147), 「…비즈옷하면 브더 보
기 이세야허려니와 바즈옷 모리나 홀양이면 나모
허라 브더보내소…」(130) 등으로 배자의 착용을 알
수 있다.

이외 어휘 「등베게」를 볼 수 있다. 「…등베게 내
믹던 거시더니 보내노라 새로 헐여 잠간 밍엿느니
라」 등베게는 어떠한 옷인지는 알 수 없으나 끈으
로 여미는 옷임을 유추할 수 있다. 『박통사(朴通
事)』에는 한어(漢語) 비갑(比甲)을 「비가·비게·
비게옷」(31)으로 번역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비갑은
원나라때 비롯된 옷으로 …셔과 길 그리고 소매가
없으며, 두 개의 끈으로 여미를 하는 옷(32)이라 하
였다. 이는 배자계통의 의복으로 유추하나, 그 구
성은 흉배를 장식하거나 혹은 문양이나 화려한 직
물(羅)로 구성되었던 의복(33)이다. 이는 중국에서의
착용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면 출토복식 가운데 등거리형 상의(34)가 등비
게일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보안되어야 할 것이다.

3. 저고리류

저고리류의 명칭은 「저구리·적삼·고도」 등이
있다.

1) 저구리 (순언 17·31·58·61·80·144· 146·148·149)

「저구리」는 문헌에서 한자차용어 적고리(赤古
里)로 표기되며, 간찰에 나타난 저고리에 대한 내
용은 「…지금 두터운 저구리가 없어 …수기에게
차근 저구리 ㄱ술 보내자…», 「…아버님 겹적삼 빨
아서 저구리 하여주고…», 「지그미 저구리도 묻히
여 주노라…», 「…을 ㄱ술 동저구리 두어 입게 씨
없엔 것… 각 각 여덟 냥씩 보내되 네게는 혼 여덟
냥이 더 간다. 수미나 순이나 추운 아니 먼저 두어
입혀라…», 「…동저구리와 흰 당옷…», 「…지금 동
저구리도 못하여 니퍼…», 「…나는 차근 저구리도

돋히여 니번노라…», 「…열녕냥 저구리에 두어 니 버라…», 「…저구리도 이셔도 니블더 업스니…」 등이다.

여기서 어휘「저구리」는 「동저구리·자근저구리·저구리」로 언급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 「동저구리」에 대하여 많이 언급을 볼 수 있다(61·80·144). 여기서 「동」은 한자어 동(冬), 즉 겨울용 저고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저고리는 한자어로 소오자³⁵⁾로, 오자는 다시 핫웃³⁶⁾이며, 핫웃은 솜웃³⁷⁾이다. 그렇다면 본 간찰에서 저고리의 내용이 솜과 관련된 것 등으로 당시 어휘 「저구리」는 짧은 상의가운데에서도 겨울용을 한정할 어휘일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겨울 저고리의 솜은 씨바른 면화의 경우 아이들의 저고리에 약 8냥(61·148), 어른의 것은 14냥이 사용되었다. 당시 「저구리」는 보통명사로 사용된 것이라 추정한다(149).

또한 저고리 명칭에서 이러한 「동저구리」 외에 「자근저구리」를 볼 수 있다(17·146). 여기서 동시기 출토저고리에 나타나는 저고리의 길이에 의한 긴저고리와 짧은 저고리를 볼 수 있는데 이 짧은 저고리가 당시 자근저구리로 언급되었을 것으로 본다. 즉 저고리는 계절용과 크기에 따른 종류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황유선은 동저고리와 자근저고리를 길이에 의해서 동저고리는 허리아래의 긴저고리로, 자근저고리는 짧은 저고리로 추정하였다.

2) 적삼 (순언 26·31·137·153)

오늘날 적삼은 「윗도리에 입는 홰웃」 혹은 「홀으로 된 웃웃의 하나」³⁸⁾ 혹은 「홀겹으로 살에 닿게 입는 저고리다」³⁹⁾ 즉 홰겹의 저고리를 지칭한다. 적삼에 대한 언급은 「…적삼은 …」, 「…아버지 겹적삼 빨아서 저구리 흐여주고…」, 「…니 적삼 고들도 이조 업스니 …」, 「… 내 낚던 소적삼을 날 본 드시 낚게 보내노라 …」 등이 있다. 여기서 아버지 「겹적삼」을 통하여 볼 때 두겹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당시 어휘 「적삼」이 오늘날과 같이 홰웃만을 지칭하는 어휘가 아닌 저고리와 유사한 어휘이었음을 유추한다(31). 이는 「적삼」의 어

휘가 조선중기와 오늘날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어휘 「적삼」은 당시 중국어휘(漢語)로 汗衫·衫兒⁴⁰⁾임을 볼 수 있다.

3) 고도 (순언 17·31·137·153·165)

「고도」는 궁중어휘가운데 하나로 「저고리」(조항법), 「궁중의 흰겹저고리」(이회승) 혹은 제사지낼 때 여자가 입는 흰 겹저고리(김영숙)로 오늘날 「고도」는 흰색 겹저고리를 지칭한다. 이러한 어휘 「고도」에 대해서 황유선은 16·17세기 1회와 이후 19·20세기에 이르러 볼 수 있는데 모두 『불기』 한 종류 문헌에서 등장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명칭이라 하기에는 한계성을 지니는 어휘로 추정하였다⁴¹⁾. 그러나 16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본 간찰에 「고도」가 나타남으로서 그 사용과 연대추정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도는 다른 어휘에 비하여 비교적 적게 언급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고도·털릭·바디·덕령…」, 「…겹듬치막·바디·고도·홀이불…」, 「…명디·고도·것듬치막…」, 「…니적삼고달도아조업스니 그 뵈란 피보기…」(37), 「…고달솜거술랴보내고…」(153) 등이다. 즉 「고도」는 포류 혹은 바지류 혹은 기타 의류와 함께 지칭되며 여기서 저고리와 중복 사용되고 있지 않아 저고리류를 지칭하는 어휘가운데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31·165). 이러한 어휘 「고도」가 『불기』와 본 간찰과 같이 언문 기록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고유어휘임을 반영한다. 또한 오늘날 「고도」를 앞에서 궁중어휘로 분류하는 것과 달리 일반서민의 것인 본 간찰을 통하여 볼 때 「고도」는 조선중기에서는 우리 고유 명칭으로 일반인의 어휘로 사용되었다고 추정하며, 이것이 후에 궁중 어휘로 전이된 것으로 유추한다.

또한 동시기 『번역박통사』에 고두는 속옷의 일종이며, 중국어(漢語)로는 「과두」로 언급되었다⁴²⁾. 이는 당시 어휘 「과두」는 중국어이며, 「고두」는 고유어임을 암시하며 더 나아가 「과두」와 「고도」가 속옷으로 유사한 혹은 동일한 의복임을 의미한다. 조선중기 문헌에 언급되는 「과두」⁴³⁾ 역시 그 정확한 의복종류에 대해 확실하지 않았으나⁴⁴⁾ 「고도」와 유사한 속저고리의 한 종류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또 「고도」는 그 빈도를 통하여 볼 때 저고리와 함께 고유어로서 속저고리를 의미하나 저고리보다는 보편적이지는 않았던 어휘였으며, 「고도」가 당시 특정 의복 즉 흰색의 겹저고리를 지칭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3. 하의류

하의류에는 「바디」와 「치마」가 있다.

1) 바디 (순언 17·31·36·102·149·150·155)

「바지」의 기록은 세종시대 「파지(把持)」와 『국혼정례』나 『상방정례』에서 모두 「파지」의 기록이 있으나 모두 한자차용어이다. 「바디」가 고유어휘임을 뜻한다. 본 간찰에 나타난 고유어의 「바디」를 통하여 조선중기에 이미 일반적인 어휘로 통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외 조선말 『궁중의대발기』에 「봉디」를 볼 수 있다. 「바디」에 대한 내용은 「...아버지 바디와 숨것 곁들여 가고...」 「겹듭치막·바디·고도·홀이불...」, 「...바디를 헨 거스로 흐여...」, 「...이 바디 늘근 거시라 곱...」 「...바디 내일 디리게 되면...」, 「...네 바디간다...」, 「...바디업시 기리바디 초록털락...」, 「...바디는 사셨는가...」이다.

여기서 「바디」는 친정어머니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네 바디 간다...」(149)를 통하여 당시 바지는 남녀가 함께 착용한 의복이었음을 암시한다. 여기서 「가리바디」라는 어휘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2) 치마 (순언 18·102·106)

「치마」는 그 발음이 이미 치마로 정착되었음을 알려준다. 치마에 대한 내용은 「...순이 치마 닳이 업서 털락 계오 붓고...」, 「...이 치마뵈 츠려 보내 어라...」, 「...당옷·치마 안흐고져...」이다. 여기서 치마는 걸감과 안감에서 그 양과 질이 구분되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102·106).

4. 기타류

머리장식과 신발류 그리고 이외 의복구성에 관

한 어휘이다.

1) 머리장식

머리모양과 머리를 장식하는 명칭으로는 모자류로 「감토·갠」이 있으며, 남자의 머리장신구인 「망건·관즈·영즈」가 있고 여자의 머리장식인 「머리다리·비녀」가 있다.

「감토」는 오늘날 감투라 하며, 탕건과 유사하며, 말총·가죽·천으로 만들며, 방한용으로도 착용한다(김영숙). 감토의 내용은 「...자리와 감토 엮었는데 길을 가는데...추어서 기워서 간다...」(17) 「...바람쏘이니 감토 보내소...」(97)이다. 즉 날씨가 추워짐에 감토를 기우거나 혹은 착용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감토」가 당시 일반에서는 방한용 모자로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출토복식에 나타난 감토(전박장군·구례손씨)의 경우도 방한용 구성을 볼 수 있다.

「망건」과 「관즈」(76), 「...망건·관자...」, 관즈 「...쌀 한 되만 보내소...」, 갠 「...갠보낼 제 니 영즈도 흐니 보내소...」(138), 「...무던니 남진 주어 갠 밍글(만들) 빅스(백사) 스크르 흐니 바다(받아) 보내라 흐신다...」 「갠·영자」(138)는 함께 언급함으로써 당시 일조로 사용되었음과 특히 갠의 재료로 흰색의 비단실의 사용(178)을 볼 수 있다.

『역어유해』에서 「감토」는 소모자로, 「갠」은 대모자로 「감토」와 「갠」은 한자의 대(大)와 소(小)로 구별되었다. 여기서 감토는 소모자에 한정된 반면 갠은 대모자뿐 아니라 털갠(氈帽子)·종갠(帽子)·초갠(草帽子)으로 기타의 모자 역시 갠으로 번역되었으며, 이외에도 갠(帽珠兒)·갠대우(帽頂兒)의 어휘를 볼 수 있다. 즉 어휘 「갠」은 모자의 재료와 부착장치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되었던⁴⁵⁾ 어휘로 오늘날의 흑림(黑笠)을 지칭하는 갠보다 폭넓게 사용되었던 어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외 여자의 「머리다리」(23)가 있다.

2) 신발류

「보션」과 「흰던·휘」가 있다.

간찰에 「보션」(17·32·52·55·95·144)에 대한 내용은 「-기워신는」 행위에 대한 것이었다. 「둔

거이 기워가느니, 혹은 「몸 기워 시느니」든지 혹은 「그리운 사람에 대한 애정표현으로 「보선 기워 보내려두고」등이다.

「힌던」(17)은 보선과 함께 기워서 사용하고, 모시행전은 계절에 따라 소재를 달리하였던 것을 의미한다.

「휘」(30·64·106·132)에 대한 내용은 「…동휘 하나씩 보내시너이다…」(64)는 목화를 계절에 따라 사용하였는지 혹은 겨울용 목화가 있었는지, 또 「…신슈니 복기리 순이리 휘 보내노라…」(132)의 내용을 통하여 일반 어린이들도 목화를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의복구성

안집과 솥갓 그리고 겹겹이 있다.

「안집」(16·31·36·106·147)은 안감을 의미하며 간찰의 내용은 「…안업서 더더있다 …」, 「…학개것도 벼를 벗겨서 안집들히고…안집들히고…」, 「…또 른 옷 안호려서 깃게라 나문…」, 「또 명주는 안집이야 이만하니 꺾명주 아주 굵고 …」, 「…내 당옷치마 안호고져 하니 휘…」, 「…옷 안흔은 아미려나 부비려니와 …」이다.

이의 「부채」와 「니블」 그리고 보자기의 「보희」가 있다. 이블은 「흔니블」(31·137)로 역시 구성을 계절에 따라 달리하고 이에 따른 구분이 있었음을 나타낸다.

이상과 같이 의복명칭어휘 가운데 고유어 명칭에는 「옷·그라매·뽕치막·뽕비계·저구리·고도·바디·치마·감토·갓·머리다리·보선·힌던·부채·니블·보희」가 있으며, 고유어와 한자어의 복합어 명칭은 당옷(長)·적삼(衫)이 있고, 한자어와 몽고어 명칭의 발음을 그대로 언문으로 표기하여 고유어화 된 것은 「복(服)·덕령(直領)·털릭(帖裏)·망건(網巾)·관자(貫子)·영자(纓子)·휘(靴)」가 있다.

이러한 의복명칭가운데 간찰과 동시기의 문헌에서는 「長衣·帖裏·褰肚」의 한자표기와는 달리 본 간찰에서는 조선후기이후 언문기록에서 볼 수 있었던 「당옷·뽕치막·털릭·저구리·고도」 등의 언문명칭의 출현은 고유어 어휘가 조선중기에 있

어서도 보편적인 어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의생활어휘도 문헌에서의 중국어(한자어)인 반면 실생활에서는 언문(고유어)의 2중구조였음을⁴⁶⁾ 확인할 수 있었다.

IV. 재질에 관한 어휘

순천 김씨묘 간찰에 나타난 의복재질에 관한 어휘를 소재와 염료 그리고 부속품과 세제로 분류하여 당시의 물질문화를 이해하고자 한다.

1. 의복소재

의복소재는 마섬유·면섬유·견섬유로 분류되며 어휘 「뵈·무명·명디·모시」가 있다.

1) 마섬유

「베」(순언 9·35·37·56·65·67·70·90·95·102·106·111·137·153·167)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베2필을 물들이는 노임으로 무명 반필이 지불되었던 것」(69)과 뵈는 용도에 따라 보선감(90·95) 혹은 차마감(102)의 용도에 따라 굵기(35·137)를 달리 제직하였다.

또 베는 제직방법에 있어서도 직접 개인이 짜거나 혹은 공동으로 품앗이하여 짜거나 혹은 베를 전문적으로 짜는 종을 두었던 것(69·167)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베의 명칭으로 들뵈(67)·반뵈(70·111)·공베·식베가 있다. 여기서 반베란 반물빛 실과 흰실을 섞어 만든 무명이며, 그 폭이 좁은 무명을 말하며(김영숙, 이희승) 이외 달베와 공베 그리고 식베는 어떠한 베인지 오늘날에는 사라진 어휘라 추측한다. 「뵈」는 직물을 나타내는 고유어휘이며 한자로 포(布)를 뜻한다.

모시 (순언 14·158·164)

모시에 대한 내용은 굵기에 대한 표현으로 탭모시가 있다. 이러한 고유어 어휘 「모시」는 중국어(漢語)로 모시 혹은 모시포(毛施布)⁴⁷⁾, 태모시를

저마라 하였다⁴⁸). 이에 대해서 양오진은 모시포의 명칭은 고려인의 직물명칭이 중국으로 수출된 물품으로 그 어휘도 고려로부터 중국으로 역수입된 한자어라 할 수 있으며, 또 모시포는 'Muslin'의 음차(音借)라는 의견도 있다⁴⁹).

2) 면섬유

면섬유의(9·14·16·37·56·67·68·69·70·80·83·90·99·106·119·125·126·138·139·147·150·153·165·175·186)어휘에는 「무명·면화·목화·면태·소음·푸소음」이 있으며, 그 가운데 무명과 면화의 빈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무명에 대한 내용은 「... 늘 입을까 무명을 보내려 하였는데 ㄱ라니불 오솔허랴?...」(9) 당시 일상시의 의복은 무명옷의 착용에 관한 것과 무명을 지어서 보내는 내용과 그 무명을 갖는 어려움에 관한 것이다. 무명어휘에는 우줄무명(64)·상질무명(64)·가난무명(80·99·125)·필무명(80)·야상무명(80)·슈공무명(69)·물값무명(83)·약살무명(119)·무명다리(165) 등이 있다. 여기서 「우줄-·상질-·가난-」은 무명의 질을 나타내며, 「철릭-·약살-·슈공-·물값-」은 무명이 의복과 약 값으로, 또 직조와 염색의 수공으로 지불되는 즉 무명이 화폐의 대용품으로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무명의 단위는 「-필」을 사용하고 있으며(14·69·83·90·106·119·131·137·175), 무명5필은 명주2필의 값이며, 여기서 「무명다리」를 오늘날 그 뜻을 알 수 없었다.

면화(17·19·35·37·52·57·61·62·80·100·146·148)에 대한 내용은 일반 「면화」와 「씨바른 면화」로 단순히 구분할 뿐 그 질을 앞의 무명처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양을 측정하는 단위로 면화는 「-근」(19·62·80·100)과 「-저울」(57)을 사용하고, 씨바른 면화의 경우는 「-냥」(61·148)을 사용한 것으로 면화의 종류에 따라 그 측정어휘를 달리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어휘 「면화봉송」은 선물로 면화를 사용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시 면화의 용도를 반영한다(80).

소음(순언 59·143·146·147)은 한어(漢語)로

면(綿) 혹은 면자(綿子)이다⁵⁰).

3) 견섬유

견섬유의 어휘는 초사와 명디 그리고 깃이 있다. 초사에 대한 내용은 「...또 수미에게 고운 초사와 부채 춘개에게 가니 찾아 주어라...」이다. 초사(綯絲)는 한자어 어휘이다.

「명디」(10·21·52·62·79·90·106·128·131·144·165·175·178)는 「겉명디」(62·131·175·178)와 「안명디」(178)로 겉감용과 안감용으로 구분하였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명주의 울이 가늘고 넓이가 넓고 빛이 고운 것을 「겉명주」로 하였고 명디의 질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는 명디의 질이 명주의 직물의 나비와 색상 그리고 실의 굵기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외에 명주의 측정단위로 「필」과 조각을 나타내는 어미어휘 「-자투리」도 볼 수 있다(62·144). 이는 명주는 그 조각까지 사용하였던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명주의 귀한 정도를 엿볼 수 있다.

「깃」에 대한 내용은 「뽕도 뜯내고 깃도 뜯프니 실뽕들 만히 ...」이다(57). 명디는 한어로 주(紬)라 하고, 깃은 견·검·제·증·초⁵¹)에 대한 고유어휘로 폭넓게 사용되었음을 뜻한다. 그 깃과 명디의 구분이 있었는지는 혹은 오늘날과 같이 동일한 것이었는지는 앞으로 밝혀야 할 과제이다.

2. 염료

염색의 종류에는 「즈디·잇·개잘·규화」이 있으며, 특히 「즈디」가 많이 언급되고 있다.

「즈디」(14·15·35·62·67·137·144·165·179)에 대한 간찰내용은 서로 보내라는 내용과 시기에 맞춰 염색하지 못한 것, 또 염색이 잘 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걱정에 관한 것들이다. 간찰에 나타난 즈디는 염료를 지칭한다. 이러한 어휘 「즈디」는 오늘날 국어어휘의 「자주」로 정착하여 한자어의 자격을 상실하고 고유어화된 한자차용어이다⁵²). 조선중기는 즈디가 색상의 명칭보다는 염료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외 「잇」(18·146·147·173)과 개잘(131) 그

리고 「규화(葵花) (139)를 볼 수 있다.

3. 기타

부속품에는 어휘 「누에뻘/누에씨(70·111), 「시꾸리(실꾸리)」(111), 「시프리씨(실풀이씨)」(70) 그리고 「야토로」(119)를 볼 수 있다. 여기서 「야토로」는 초록의 한가지인 야청(검은빛을 띤 푸른빛) 어휘이며⁵³⁾, 야토록(鴨鼓絲)의 백화계(白話系) 한자어(漢字語)⁵⁴⁾라 하였다. 야토로는 압록(鴨綠)⁵⁵⁾ 즉 청색계통의 색을 이른다.

이외 「비노」(143)와 「실」(144·153·178) 그리고 이름이 있다. 당시 비누의 사용을 알 수 있으며, 그 형태는 알 수 없지만 부피로 측량하여 사용한 것으로 가루가 아니었을까 유추한다. 염료 「잇」이 「...닛 여뿔냥 조각들간다...」(146)하여 잇꽃을 염료로 하여 조각으로 사용한 것을 암시한다.

이상과 같이 의복재료에 대한 언급은 「면화·무명·명디」의 순이다. 이는 당시 사용된 의복소재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반영한다. 즉 무명과 명주의 사용이 많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면화에 대한 언급은 솜옷의 착용이 많았음을 뜻하며 동시기 출토 복식에서 솜옷이 많이 출토되는 것은 이를 반증한다.

의복소재의 종류에 따른 다양한 단위를 볼 수 있다. 그 종류에는 되(비노·쌀), 냥(면화·잇·소옴), 필(무명·베·명디), 근(면화), 저울(면화), 자(베·무명), 감(무명·명디)이 있다. 즉 비누와 쌀은 부피에 의하여 「되」로, 면화·잇·솜은 무게에 의해서 「근·냥」으로, 무명·베·명주와 같은 직물은 길이에 의하여 「자·필·감」으로 그 양을 측량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의복재질은 용도와 질에 따라 어휘를 달리하였다. 즉 무명은 우줄·상질로, 모시는 태모시, 명주는 걸명디·안명디 등으로 구분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 제직시에도 그 용도에 따라 옷감의 양(장옷감·뽕치막감...)과 질(안짱·걸명디·안명디)를 달리하였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직물은 화폐의 대용품으로 (약·야토로·소금·수공무명·철릭...) 물건값이나 임금과 의복의 값으로 사용되었으며, 대부분 무명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의복재료의 양(크기)을 나타내는 다양한 어미어휘는 -감(장옷감)·-자투리(명주자투리)·다리(무명다리·직령다리)가 있다. 여기서 -감이란 의복의 종류에 따른 재료의 양을 지칭하는 어미이며, 기록에 나타난 「...딕령감·털릭감·뽕치막감·당옷감·적삼감·자근저고리 8냥...」은 의복제작에 있어서 의복종류에 따라 재질의 양이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의복종류에 따른 유형(기준)이 있었음을 뜻한다고 본다.

자투리란 자풀이로 팔고 남은 천조각(이희승), 의복재료에 관한 어휘 가운데 「면태·끝명디·-드리」가 오늘날 사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당시의 어휘라 본다.

V. 동사에 관한 어휘

간찰에 나타난 동사어휘를 재직·구성, 착탈, 관리측면에서의 의복행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재직·구성에 관한 동사

실과 직물의 재직에 관한 동사어휘는 「-짜다(짜다)·-즈다·-방직」이 있으며, 그 가운데 「-짜다」(9·35·37·70·90·111·134·144·164·167·177·179)의 출현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편적인 어휘였음을 반영한다. 목적어는 직물의 양(세필/134)과 직물의 명칭뿐 아니라 직물의 성격을 의미하는 교직상태로 짤 경우에도 사용된 것(144) 또 특정 의복대상의 직물로 「-감」(35·90·179)을 사용하거나 직물명칭(70·164) 등 다양하게 볼 수 있다. 어휘 「즈으며」(144)는 실에 한정된 것을 볼 수 있으며, 「방딕(방직)」(69·83)은 명사로 사용됨을 볼 수 있다. 이외 그 재직상태를 나타내는 「가늘게·굵근·굵다」 등의 어휘도 볼 수 있다.

의복을 구성하는 봉제에 관한 동사어휘는 (14·17·18·19·21·30·59·52·55·59·62·67·80·131·144·146·149·153·155·165·175·178) 「바느질」(146)·「/므라/므르고/므르다(마르다)」

(17·53)·「씻든(짓다)」(18·21·59·67·144)·「명글(만들다)」(178)와 「기원(집다)」(17·52·55)가 있다. 갖의 경우는 「만들다」(178), 철릭(21)·장옷(59·144)·화와 의복종류의 경우는 「짓다」, 버선의 경우는 「집다」(17·18·55)가 사용되었다. 즉 제작동사어휘는 행위대상에 따라 달리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외 「두다」(17·59)·「브라두고(뜯어두다)」(80)·「사보내고져/사신가(사보내다)」(14·155)와 그 상태를 나타내는 어휘 「뭉고(춤춤하고)」(14)·「덜조기(널찍하게)」(59)·「너비좁고(너비좁고)」(62)·「자근」(17)·「둔겹고/두터오니(두겹고)」(14·165·175)·「두더기/두드기(두둑이)」(17·33)·「열온/열워/열오니/열게/열오니(얇아)」(17·19·35·59·131) 등이 있다.

2. 착탈에 관한 동사

의복을 입고 벗는 동작을 나타내는 착탈동사어휘(9·16·17·19·15·17·20·21·23·31·32·33·37·38·56·59·61·80·94·95·102·121·122·144·148·149·150·153·166·177·186)는 「눕다·신다·벗다」가 있다. 여기서 「눕다」는 의복 전체를 나타내는 보통명사 「옷」(20·21·33·38·122·186)이나 둥치막(102), 소격삼(153)과 같은 특정 의복을 대상에 사용되었다. 또한 어휘 「입다」는 접두어와 접미어에 의해서 「갈라니버라/그르(나누어입다)」(9·19), 「어더니블(얼어-)」(20), 「고터넙노라(고쳐-)」(32), 「니버가고져(입고가다)」(38), 「두어넙게/두어니버라(두어-)」(61), 「넙게보내노라(-입게 보내다)」(153) 등의 다양하다.

「시늬시계(신다)」(7)는 버선에 대한 어휘이며, 어휘 「바손(벗다)」(16)는 의복 전체에 대한 어휘로 사용되었으며, 이외 의복의 상태에 대해서는 「늘그니(날다)」(2), 「사더니라(사그러졌다)」(15), 「치이러 타 뵈여라(치일어 다 보인다)」(17) 등의 표현을 볼 수 있다.

3. 관리동사

의복의 염색과 푸세 및 세탁 등에 관한 관리동사어휘(13·31·145·18·42·62·66·67·69·70·83·119·128·131·144·1476·147·160·165·166·167·175·179) 가운데 염색에 관한 동사어휘 「물몬드려/물수이드리다(물들이다)」(62·83·165), 「물다듬다」(65), 「드려/드리다/드릴/드리게(드리다)」(13·15·18·62·69·70·83·128·130·144·147)가 있다.

푸세에 관한 어휘는 「다드미(다듬이질)」(144), 「다드마(다듬다)」(179), 염료관리에 관한 어휘는 「물프리디듯(물감풀다)」(160), 「지와(개다)」(35), 염색상태에 대한 어휘는 「고오니/곱고(곱다)」(131·150·165), 「빛도코(색깔이 좋다)」(175), 세탁에 관한 어휘에는 「벗라셔/벗노라(빨다)」(31·147)와 「세담호고(세담하다)」(167) 등이 있으며 여기서 동사 「세담하다」는 오늘날 빨래라는 의미의 명사 「세담」으로만 그 사용이 축소된 것을 볼 수 있었다(이희승).

또한 간찰에 나타난 동사어휘는 「방덕·재단하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동사어휘는 고유어인 동시에 사전을 통하여 볼 때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어휘임을 알 수 있었다.

동사어휘는 행위대상에 따라 세분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제작동사의 「만들다」는 모자류에, 「짓다」는 의복명칭으로 의복류에, 「집다」는 버선에, 착탈동사의 입다(의복명) 신다(화·버선) 이외 제작동사에서 「짜다」는 직물의 양·직물의 조직·직물명칭·의복명칭에, 「자다」는 실에, 즉 행위대상에 따라 동사어휘를 달리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었다.

VI. 결 언

16세기 순천김씨묘 출토 언문간찰에 나타난 의생활 어휘를 의복명칭·의복재료·동사로 구분하여 명칭의 구성과 물질문화와 의복행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의복명칭어휘는 「옷·덕령·털릭·당옷·똥치막·비즈/저구리·적삼·고도/바디·치마/감토·간·망건·관자·영자·머리다리/보선·힌던·휘/부채·니블·보희」등이 있었다. 의복명칭은 고유어명칭(옷·똥치막·저구리·고도·바디·치마·감토·간·머리다리·보선·힌던·니블·보희)과 고유어와 한자어의 합성어명칭(당옷·적삼) 외래어(한자어·몽골어)의 고유어화된 명칭(덕령·털릭·비즈·망건·관자·영자·휘)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포류와 모자류 명칭에서 한자어와 몽골어 차용을 볼 수 있는 반면 저고리·바지는 고유어 중심이었다. 이는 기본복은 고유문화 중심인 반면 의례복은 외래문화를 수용하면서 발전하였음을 어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복재질에 관한 어휘에는 「뵈·돌뵈·반뵈·식뵈/모시·태모시/무명·우줄무명·상질무명·가난무명·필무명·야상무명·슈공무명·물값무명·약살무명·무명다리·면화·씨바른면화·면화봉송·목화·면태·소음·푸소음/명디·깃·겉명디·안명디·초사/즈디·잇·개잘·규화/누어씨·실풀이씨·비노·실/되·필·근·저울·자·감」이 있다.

소재에 있어서 면섬유에 대한 다양한 어휘(무명·면화·목화·소음·푸소음·면태)는 당시 면섬유가 보편적 의복재질로 사용되었음을 반영하며, 또한 측량단위에 있어서 소재의 종류에 따른 어휘(되·냥·필·근·저울·자·감)와, 재질의 양을 나타내는 어휘(-감·자투리·다리)와 재질의 질을 나타내는 (우줄·상질·태모시·겉명디·안명디) 다양하게 발달하였다. 즉 직물은 의복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계획 생산되었음과 화폐의 대응품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동작을 나타내는 어휘는 「짜다·짓다·가늘게·굴근·긋다·바느질하다·므르다·만들다·깎다·두다·뜯어두다·넙다·가라넙다·얻어넙다·고쳐넙다·입고가다·두어넙다·신다·벗다·낚다·사그라졌다·치일어보인다·물들이다·물다듬다·드리다·다듬이질·다듬다·물감풀다·개다·곱다·색깔이 좋다·빨다·세답하다·춤춤하게·널찍하게·넓이 좋게·자근·두껍고·두

독이·얇아」가 있다.

동사어휘는 유사의미를 행위대상에 따라 세분화하여 적용되었다. 즉 제작과 착용동사는 인체를 머리(만들다)와 몸(짓다·입다) 그리고 발(깎다·신다)의 세부분으로, 제작동사는 직물(짜다)과 실(깎다)로 구분하여 동사어휘를 달리 사용하였다. 다양한 접두어(갈라-, 얻어-, 고쳐-, 두어-)와 접미사를 통한 다양한 어휘의 사용을 볼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본 언문간찰에 나타난 의생활 어휘 대부분이 고유어로 구성된 점은 조선중기 의생활 문화가 고유문화를 바탕으로 이루진 의미로 해석한다. 일부 외래어 의복명칭은 주변국과의 교류를 의미하며, 의복의 종류와 재질과 양에 따른 측량단위의 다양한 어휘는 당시의 의생활에 관한 물질문화가 합리적이며 체계적이었음을 뜻한다. 아울러 행위대상에 따라 세분화된 동사어휘는 의생활방식이 다양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 1) 이기문, 국어어휘사연구, 동아출판사, 1991, p.11.
- 2) 한국고문서학회역음, 조선시대 생활사, 역사와 비평사, 1997, pp.19-29.
- 3) 고복남, 한국복식용어의 변천사적 연구, 한국민속학회지14호, 1981, pp.1-40.
- 4) 박진아·조우현, 고려사절요의 복식에 관하여 I, 인하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논문집 제3집, 1997, pp.207-256.
- 5) 이은주, 철릭의 명칭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 12-3, 1988, pp.363-371.
- 6) 장인우, 조선시대 첩리의 명칭과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5권 1호, 1997, pp.389-399.
- 7) 황유선, 조선시대 저고리類 명칭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1999.
- 8) 안귀남, 이응태묘 출토간찰, 안동대학교 박물관 총서 14, 안동정상동 일선문씨와 이응태묘 발굴조사보고서, 2000, pp.99-117.
- 9) 이은주, 17세기 전기현풍곽씨 집안의 의생활에 대한 소고, 한국복식학회지 Vol51, No.8, 2001, pp.25-41.
- 10) 김동욱, 임란 전후기의 출토복식, 임란전후 출토복식 및 상례, 충북대학교 박물관, 조사보고제8집, 1983, pp.13-192.
- 11) 조항범, 주해 순천김씨묘 출토간찰, 태학사, 1998, pp.6-30.
- 12) 심제기, 1991.

- 13) 정호환, 앞책, pp.231-238.
- 14) 梁伍鎮, 老乞大 朴通事 研究, 태학사, 1998, p.49.
번역노걸대와 번역박통사는 최세진이 중종12년(1517)에 간행한 사성통해의 권말에 부첨된 것으로 그보다 앞선 시기의 것으로 추정됨
- 15) 譯語類解, 아세아 출판사, 影印本, 1974.
- 16) 翻譯老乞大 上 大提閣 影印本, 1974, p.65, 「…布衫襟兒 ○뵈웃자락…」
譯語類解, 앞책, p.90, 「…氈衫○담웃…」
- 17) 翻譯朴通事 上 影印本, 大提閣, 1974, p.104 「…衣裳帽子靴子○웃고의감토…」
譯語類解 影印本, 亞細亞出版社, 1980?, pp.91-95, 「… 接衣裳 ○웃밧다…, 穿衣裳○웃닙다, 剝衣裳○웃벗기다…, 搭衣裳○웃거다…, 洗衣裳○웃뵈다…, 襪衣裳○웃에 무리먹기다…, 運衣裳○웃다리다…, 疊衣裳○웃가혀다…」
- 18) 朴通事 앞책, p.105 「…穿衣服○웃닙고…」
譯語類解, 앞책, p.95, 「…웃구귀다○衣服掛了…」
- 19) 譯語類解, 앞책, pp.90-91, 「…襖子○햇웃…, …胖襖子○두터운 햇웃…, …皮襖○갓웃…, …納襖○누비웃…」
- 20) 譯語類解, 앞책, p.90, 「…直身○직령웃…, …襯衣○술헤다혀남는웃…, …襖子○햇웃…, …皮襖○갓웃…」
- 21) 조항범, 앞책, 7라매란 차려입는 웃, p.102
- 22) 이희승,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86.
- 23) 이은주, 앞글, p.34
- 24) 오창명, 「儀軌」에 나타나는 借字 表記 研究(1), 한국복식, 단국대학교 민속학 연구소, pp.29-64, 1997.
한이란 한자의 유(襦)로서 솜 든 웃을 의미한다
- 25) 박성실, 조선전기 출토복식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박사학위논문, 1992.
- 26) 樂章歌詞, 影印本, 大提閣, 1974, 鄭石歌 …므셔로털릭…
- 27) 翻譯 朴通事 上, 앞책, pp.53-143, …羅帖裏…로털릭, …織金羅帖裏…금으로뵈털릭, 黑帖裏布…거믄털릭, …五采繡帖裏…오치실로슈길흔 털릭, 胸背帖裏홍배뵈털릭…, 我的帖裏…나의털릭
- 28) 유희경·김미자·강순제, 진주하씨묘 출토문헌과 복식조사보고서, 건들바위박물관, 1991, pp.92-133.
- 29) 장인우, 출토복식을 통해본 17세기 봉제과정, 韓國服飾學會 第51卷1號, 2001, pp.33-48.
- 30) 家禮原流, (1683) 서울대학교 奎章閣, 도서번호1633, (袍襖有綿者, 長襦褌衣, 如俗中赤裏 …
- 31) 翻譯朴通事 上, 앞책, pp.53-58, 「胸背의比甲○비가오새, …雲織金羅比甲○구름문을직금흔노비게예」
譯語類解, 앞책, p.90, 「比甲○비게웃」
- 32) 漢韓大辭典, 比甲 …元昭睿順皇后所製, 以便弓馬之服, (元史, 世祖昭睿順皇后傳)
後製一衣, 前有裳無衽, 後長倍宇前, 亦無領袖, 綴以兩襟, 各曰比甲, 以便弓馬時皆做衣
- 33) 翻譯朴通事, 앞책, pp.53-143, 「明綠抹絨胸背의比甲」, 「雲織金羅比甲」.
- 34) 이은주, 조선전기 斂襲衣의 일례, 비교민속학, Vol.15, 1998, p.110.
- 35) 譯語類解, 앞책, 90, 「小襖子 ○저구리웃…」
- 36) 譯語類解, 앞책, p.90, 「襖子○햇웃…」
- 37) 오창명, 앞글, 주 23) 참조
- 38) 김영숙편저, 한국복식문화사전, 미술문화, 1998.
- 39) 이훈중, 민족생활어사전, 한길사, 1993.
- 40) 譯語類解, 앞책, p.90, 「汗衫○뽕밧기 격삼」
翻譯朴通事 上, 앞책, p.52 「衫兒○격삼」
- 41) 황유선, 조선시대 저고리類 명칭에 관한 연구, 서울大學教 大學院, 衣類學科, 석사학위논문, 1999.
- 42) 翻譯朴通事 上, 앞책, p.52, 「褻肚等裏衣 ○고두류속 오스란」
- 43) 國朝五禮儀, 奎章閣 影印本, 卷七, 凶禮, 襲, …大帶·黑團領 ……帖裏 一褻肚汗衫…
申儀慶, 喪禮備要,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번호1258, 卷四, 喪禮, 襲, …褻肚袍襖汗衫…
- 44) 황유선, 앞글, pp.18-23.
- 45) 譯語類解, 앞책, pp.87-88, 「小帽子○감토, … 大帽子○갓」, 「…氈帽子○털갓, … 草帽子○초갓, … 帽頂兒○갓디우, …帽珠兒○갓진
- 46) 심재기, 국어어휘론, 집문당, 1982.
이기문, 앞책, p.19.
- 47) 翻譯 老乞大, 上, 앞책, p.16, 「…毛施布…○모시뵈」
翻譯 朴通事, 상, 앞책, p.101, 「…白毛施布 …○뵈모시뵈」
- 48) 譯語類解(영인본), 亞細亞文化史, 1974, p.332.
譯語類解補, 織造補, 「苧麻 ○태모시」
譯語類解補는 본 언문 간찰보다는 뒤 시기인 영조 51(1775)에 간행된 기록
- 49) 老乞大·朴通事研究, 梁伍鎮, 앞책, pp.123-125, 재인용, 朴通事 集覽, 「…毛施布 此即本國人呼麻布之稱漢人皆呼曰苧麻布亦曰麻布曰 木絲布或書作…」
- 50) 翻譯老乞大, 上, 앞책, pp.25-27, 「…收買차綿絹 …○소음과 깃들」, 「…綾絹綿子○깃과 소음들」
- 51) 訓蒙字會, 帛布, 「…紬 ○명디듀…, 縑○깃검, 縑○글근깃 데, 紬○깃환, 綺○깃검, 縑○깃초」
- 52) 심재기, 國語 語彙論 新講, 태학사, 2000, pp.192-193.
- 53) 李基文, 國語語彙史 研究, 東亞出版社, p.222, 1991.
조항범, 앞책, p.563, 야토로는 초록의 한가지로 야창
- 54) 심재기, 國語 語彙論 新講, 태학사, 2000, p.186.
- 55) 翻譯朴通事 上, 앞책 p.57, 「鴨綠羅○야투로노애」